복식문화연구
제5권 제3호 57~76(1997)

복식 명칭의 화용론적 연구 (Ⅱ)
-속옷을 중심으로-

韓 明 淑
상명대학교 가정교육과 교수

A Pragmatic Analysis on Clothing-terms(Ⅱ)
-on Underclothes-

Myung-Sook Han
Professor,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Sangmyung University

目 次

Abstract
Ⅰ. 서 론
Ⅱ. 속옷 명칭의 정의
Ⅲ. 속옷 명칭의 분석 및 고찰
Ⅳ. 결 론
참고문헌

Abstract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and analyze the differences, among clothing terms, between the biblical definitions of the underwear terms and those used by the public in day-to-day life. Accordingly, the biblical definitions of the underwear terms which are widely used by the various literature are summarized. Also, the degree of recognition of the underwear terms by the public is studied by analyzing the results of the questionnaires which are distributed to 217 female college students, as the objects of data, who reside in Seoul metropolitan areas.

As a result of this study, we find the following conclusions: First, there are considerable differences in definitions of the underwear terms between those used by the various literature and those used by the public. The personal definitions of the underwear terms, or alternatively those used by the public, are very reduced and limited and even misunderstood in some cases.

Second, the definitions of the underwear terms which are actually used by the public are recognized mostly by the wearing goals, the wearing spaces, the wearing times, the wearers,

*이 논문은 1997년도 상명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연구비 수혜논문임.

the forms and the materials and, among others, the wearing goals are the most dominating factor for the recognition of the underwear terms.

Finally, the comparison among the similar underwears reveals that underwears are recognized by the wearing goals, the wearing spaces, the wearers, the forms and the materials. But, the objects of data recognize the underwear terms in very limited and simple fashion instead of having definite recognition of the differences among similar items.

Ⅰ. 서 론

본 연구에서는, 복식명칭 중에서, 속옷명칭의 문헌정의와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실제정의를 비교 분석하여 그 차이를 살펴보고, 속옷명칭과 유사 속옷의 차이에 대한 인지기반을 규명하고자 한다. 이것은 여성 속옷명칭에 대한 인지 정도와 속옷에 대한 적절한 정의 및 의미개념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이미 선행연구로서 복식명칭의 화용론적 연구(한명숙, 1992)와 언어학적 분석(신현숙, 1992)이 있었으나 이 글에서는 복식명칭 중에서도 속옷명칭 특히 여성 속옷을 중심으로 보다 실증적이고 명시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한 적절한 해답을 찾는 데 목표를 둔다.

첫째, 문헌에 제시된 속옷의 정의와 실제로 인지하는 정의 사이에는 차이가 있는가?

둘째, 속옷 명칭은 속옷의 어떤 자질에 의해서 인지되는가?

셋째, 어떤 자질에 의해서 유사 속옷의 차이를 인지하고 있는가?

속옷은 착용 목적과 기능에 따라 화운데이션(foundation), 란제리(lingerie), 언더웨어(underwear)의 세 종류로 크게 나눌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분석할 속옷의 범위로 우리 나라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착용하는 여성 속옷만으로 제한하였고, 특수 목적 외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품목(예, 쓰리인원, 가터벨트, 원텀, 각종 패드류 등)은 제외하였다. 따라서 분석에 사용된 속옷명칭의 품목은 화운데이션(foundation)의 브래지어(brassiere), 거들(girdle), 올인원(all-in one), 코르셋(corset), 웨이스트니퍼(waist-nipper), 란제리(lingerie)의 슬립(slip), 캐미솔(camisole), 페티코트(petticoat), 팬티즈(panties), 네그리제(negligee), 파자마(pazama), 나이트 가운(night gown), 베이딩 가운(bathing gown), 언더웨어(underwear)의 슈미즈(chemise), 런닝셔츠(running shirts), 드로어즈 (drawers), 콤비네이션(combination), 브리프스(briefs) 등이다.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에 제시되어 있는 속옷명칭의 정의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속옷명칭의 실제정의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서 21가지의 속옷명칭에 대해 일차적으로 사전 및 의류관련 전문지에 제시된 정의를 비교 검토하여 정리하고, 다음으로 실제 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속옷명칭의 실제정의를 조사하기 위해서 문항을 작성하였다.

질문지는 1부에서 속옷 명칭에 대한 정의의 인지도를 조사하였고, 2부에서는 유사 속옷의 차이를 조사하였으며, 그리고 3부에서는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적 특성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질문지는 응답자가 각 문항에 대해 직접 서술하도록 하는 비구조화된 문항을 중심으로 하여 속옷명칭에 대한 인지 의미를 알아 보고자 하였으며, 몇 문항은 구조화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사 대상자는 서울 시내에 거주하는 대학의 여대생을 임의로 선정하였고, 전공을 층화표출 방법으로 분류한 후, 총 300명을 연구대상으로 표집하였다. 조사시기는 1997년 5월 22, 23일 양일간 실시된 1회의 예비조사를 토대로 질문지를 작성하였고, 본 조사는 1997년 6월 중에 배부하여 불성실한 응답자를 제외한 217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본 연구자가 만들어 부호화 시킨 분류표에 따라 정리하여 빈도수와 백분률을 산정하였다.

Ⅱ. 속옷 명칭의 정의

이 장에서는 복식사전과 복식 용어집 그리고

의류관련 전문지에 나타나 있는 속옷명칭의 정의를 비교 검토하여 정리하였다. 정리에 앞서 속옷의 분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신여원, 1972; 우명숙, 1983; 服裝大百科事典, 1969).

- 속옷
  - 화운데이션 (foundation)
    - 브래지어 (brassiere)
    - 거들 (girdle)
    - 올인원 (all-in one)
    - 쓰리인원 (three-in one)
    - 코르셋 (corset)
    - 가터벨트 (garter-belt)
    - 웨이스트니퍼 (waist-nipper)
    - 기타 각종 패드
  - 란제리 (lingerie)
    - 슬립 (slip)
    - 캐미솔 (camisole)
    - 페티코트 (petticoat)
    - 팬티즈 (panties)
    - 윈텀 (winterm)
  - 홈웨어 란제리 (homewear lingerie)
    - 네그리제 (negligee)
    - 파자마 (pazama)
    - 나이트 가운 (night gown)
    - 베이딩 가운 (bathing gown)
  - 언더웨어 (underwear)
    - 슈미즈 (chemise)
    - 런닝 셔츠 (running shirts)
    - 드로어즈 (drawers)
    - 콤비네이션 (combination)
    - 브리프스 (briefs)

다음에서 (사)는 속옷명칭의 사전적 정의로 라사라 교육개발원의 복식사전, Mary Brooks Picken의 The Fashion Dictionary, 石山彰의 Costume Lexicon for Fashion Business, 青木英夫의 服裝大百科事典과 복식 용어집인 Charlotte Mankey Calasibetta의 Essential Terms of Fashion에서 발췌한 정의를 정리한 것이고, (전)은 의류 전문지인 〈봉제계〉에서 발췌한 정의를 말하는 것이다.

1. 화운데이션

(사) 화운데이션은 '토대, 기초'란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화운데이션 가먼트의 준말로서 보통 거들, 코르셋, 브래지어, 올인원 따위의 체형을 가다듬는 속옷을 가리킨다. 또는 인체의 형태를 고정하기 위해서 브래지어와 거들이 원피스로 조합된 속옷을 말하며 코르셋으로부터 진화된 것이다. 어깨를 지나는 끈이 있거나 없으며 양말을 지지하는 장치가 있는 것도 있다.

(전) 체형을 가다듬고 몸 전체의 곡선을 보정하여 몸의 균형을 잡기 위한 기초 의류를 말한다. 어의는 기초, 토대라는 뜻으로 복장을 정돈하는 토대가 되는 것을 말한다. 과거의 화운데이션은 여분의 군살을 누르거나 죄거나 당겨 올려주는 보정의 역할을 가장 중요시 했으나, 근래에는 신축성이 좋은 부드러운 소재를 이용해 자연스러운 체형을 유지하면서 전체적인 실루엣을 살리는데 역점을 둔다. 소재는 면, 나일론, 폴리에스테르, 큐브라 레이온, 폴리우레탄계 합성섬유 등이 사용되고 있다.

1) 브래지어

(사) 앞가슴의 맵시를 내기 위한 것으로 가슴의 형태를 고정시켜 주고 지지하기 위해서 여성이 입는 형태가 고정된 속옷이다. 어깨를 지나는 끈과 뒷중심의 고무밴드로 고정시킨 두개의 컵(cup)으로 되어 있으며 줄여서 '브라'라고도 하는데 20C 초에 처음 알려졌다. 소재는 면, 나일론, 레이온 및 스판덱스가 쓰이며 레이스나 자수로 장식하기도 한다.

(전) 바스트(bust) 부분을 보호하고 감싸며 적당히 조형하기 위해서 착용하는 기초 의상이다. 주된 역할은 가슴의 모양과 유두의 위치를 아름답게 유지하고 안정시키는 것과, 가슴의 크기나 좌우와 고저의 차 등을 교정해 주며 겨드랑이 밑이나 가슴 주변에 있는 여분의 군살을 제거해 주어 전체적인 윤곽을 매력적으로 조정해 주는 것이다.

2) 거 들

(사) 하반신 또는 다리의 형태를 아름답게 정돈시키기 위해 고안된 속옷으로, 신체의 굴신이 자유롭고 뼈가 들어있지 않는 것이 코르셋과 다르다. 스포츠가 성행하는 20C에 와서 신체의 아름다움을 추구하게 됨으로서 코르셋 대용으로 고안되었다. 처음에는 고무를 소재로 사용하였으나 최근에는 탄성섬유인 스판덱스로 대체되고 있다.

(전) 여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비만해지기 쉬운 부분인 허리, 배, 엉덩이의 선을 매끈하게 보정하는 기능을 위해 착용하며 탄력성있는 섬유를 사용한다. 거들은 변형 교정복으로 정형외과의 치료 장구로도 사용할 수 있다.

3) 올인원

(사) 브래지어, 웨이스트니퍼, 그리고 거들이 이어져 하나가 된 것으로 몸통의 체형을 보정하기 위해 사용된다. 코슬릿(corselet), 원피스 코르셋으로 불리우며 때로는 팬티즈가 붙은 것도 있다. 종래에는 보정이 목적이었으므로 견고한 것이 많았으나 현재는 투웨이 트리코트(two-way tricot) 등을 사용한 부드러운 촉감을 주는 것이 많다.

(전) 브래지어, 웨이스트 니퍼, 거들, 그리고 가터 벨트의 기능을 함께 갖춘 화운데이션이다. 가슴에서 엉덩이에 이르는 선의 조형을 위해 착용하는 것으로 바디 수트(body suit)라고도 명칭한다. 전체적으로 선의 흐름과 균형이 잘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실루엣을 살려 겉옷의 맵시를 돋보이게 한다.

4) 코르셋

(사) 체형을 아름답게 보정하기 위한 것으로 가슴에서 엉덩이 위까지를 강하게 조이기 위해 옆주름살을 잡지 않는 대신 고래뼈나 철사를 넣어 만든다. 부분적으로 신축성이 있는 고무천을 쓰며 끈이나 훅으로 여민다. 현재에는 거들이 애용되고 있으며 코르셋의 사용이 줄어들고 있다.

(전) 체형을 날씬하게 하기 위해서 가슴에서 힙 위까지를 꼭 조이기 위한 것으로 옆주름살을 내지 않기 위해 고래뼈나 철사를 넣어 만든다. 부분적으로 신축성있는 고무천을 쓰고 옆으로 끈, 훅, 또는 파스너로 여민다. 최근에는 거들이 많이 애용되어 코르셋은 별로 사용하지 않는다.

5) 웨이스트 니퍼

(사) 허리를 날씬하게 보이기 위해서 만든 넓은 밴드형태와 같은 속옷으로 가슴 밑에서부터 엉덩이 윗부분까지 내려오는 길이이다. 남녀 모두 사용하며, 전체를 고무로 만들거나 고무천이나 스판덱스를 부분적으로 처리한 것이 많고, 끈이나 훅, velcro로 여미도록 되어 있다.

(전) 허리를 날씬하게 하고, 상대적으로 가슴과 엉덩이를 풍만하게 보이기 위해 고무천 혹은 스판덱스로 처리하여 만든 밴드형태의 속옷. 브라와 거들만 착용했을 때 허리부분의 군살을 정리하여 아름다운 허리선으로 여성다움을 돋보이게 한다.

2. 란제리

(사) 란제리는 프랑스어의 렝즈(衫)에서 나온 말로 여성용 속옷의 총칭이다. 과거에는 거의 삼으로 만들었으므로 이런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으나 최근에는 실크, 나일론, 레이온 등 소재가 다양하다. 요즘에는 레이스나 자수를 놓는다든지 하여 옷을 아름답게 입기 위한 속옷의 뜻으로 쓰이고 있다.

(전) 란제리란 장식의라 말할 수 있으며, 겉옷과 화운데이션 사이에 위치해서 실루엣을 좀더 아름답고 우아하게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한다. 화려한 레이스나 자수를 곁들이고 부드러운 소재를 사용하여 여성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하는 것이 란제리의 특성이다.

1) 슬립

(사) 가슴 위에서부터 시작해서 어깨끈으로 고정되어 있고 브래지어와 팬티즈 위에 입으며 위에 입는 옷보다 짧은 길이의 속옷이다. 재료로는 실크, 나일론, 면, 레이온 등 매끄러운 소재가 사용되며 레이스, 프릴, 자수, 리본 등으로 장식한다.

(전) 슬립이란 미끄러진다는 의미가 있는데, 이것을 착용하면, 매끄럽고 촉감이 좋으므로 드레스를 입고 벗는데 편하며 부자연스러운 주름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 겉옷의 실루엣을 돋보이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2) 캐미솔

(사) 여성용의 짧은 속옷을 말한다. 보통은 가슴선이 수평으로 재단되었고 어깨를 지나는 가는 끈으로 연결되었다. 길이는 엉덩이를 가릴 정도이며 처음에는 코르셋을 가리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코르셋 커버(corset cover)라고 했다. 소재는 목면, 레이온, 나일론 등을 사용하며 레이스, 리본, 프릴, 자수로 장식한다.

(전) 슬립의 한 종류로 일명 데이 웨어(day wear)라고도 하는데 힙라인 보다 위에 오는 속옷

으로 페티코트, 팬티즈, 하프슬립과 짝지어 입는다. 엉덩이가 가릴 정도의 길이에 어깨는 끈으로 장식한다.

3) 페티코트

(사) 슬립과 유사한 속옷으로 허리에서부터 시작된다. 겉옷에 따라 폭이 넓은 것과 좁은 것, 길이가 긴 것과 짧은 것이 있으며 레이스나 자수로 장식한다. 18C까지는 언더 페티코트로 불리웠으며 부인용 언더 스커트로서 속옷의 역할뿐 아니라 스커트의 트임 밖으로 보이도록 하여 겉옷의 일부분으로 사용되었다. 옷의 실루엣을 아름답게 보이게 할 목적으로 소재선택이나 디자인, 색채 등이 다양하다.

(전) 언더 스커트로 겉에 입는 드레스보다 길이가 어느 정도 짧은 것이 보통인데 드레스의 디자인에 의해 스커트 아래로 보이기 위해 길게 한 것도 있다. 스커트의 부피를 부풀리기 위해 사용된 하반신용 속옷이다.

4) 팬티즈

(사) 여성과 어린이의 속바지(underpants)의 약칭으로 아래 가랑이가 거의 없는 하반신용 속옷이다. 1930년대에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기 시작하였고 1980년대는 다리가 모두 드러나도록 디자인되었다. 레이스, 자수 등으로 장식되고 쇼츠(shorts)라고도 한다.

(전) 쇼츠라고도 하는 피부에 직접 닿는 가장 기초적인 하반신용 속옷이다.

5) 네그리제

(사) 가볍고 부드럽게 보이며 레이스나 프릴과 같은 장식이 많은 실내복이나 화장복을 말한다. 방안에서의 휴식 때에도 입으며 웨이스트 라인에 보통 새시를 매는 경우가 많다. 소매는 아름답고 부드러운 천을 쓰고 최근에는 나이트 가운으로도 이용되고 있다.

(전) 가볍고 부드러우며 몸을 조이지 않는 헐렁한 옷, 레이스나 프릴을 많이 달며 실내복이나 화장복으로도 사용된다. 기장이 길거나 혹은 짧은 잠옷으로, 나이트 드레스, 나이트 가운이라고도 한다.

6) 파자마

(사) 원래 인도의 남성용 잠옷에서 유래된 것으로 발목까지 오는 바지와 오버 블라우스풍의 상의와 어울려 한 벌로 된 옷을 말한다. 1920년말에 여성을 위한 잠옷으로 도입되었고, 보통 위에 로브를 걸치는데 잠옷, 해변복, 실내복으로 나눠지며, 그 구별은 스타일과 소재로 분류한다.

(전) 상의와 하의로 구분되는 two-pieces형의 잠옷, 또는 living-wear. 소프트한 소재로서 경쾌하고 활동에 편하며 차밍하다.

7) 나이트 가운/나이트 드레스

(사) 몸통을 조이지 않는 헐렁한 슈미즈 드레스처럼 만든 것으로 나이트 드레스(night dress)라고도 하며, 원래는 여성과 어린이들의 잠옷으로 착용되었는데 면이나 실크로 만들어졌으며, 스커트 부분은 개더가 잡혀서 통이 넓고, 사각형 형태의 요오크가 사용되었다. 소매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으며 길이도 다양하다.

(전) 실내에서 입는 품이 넉넉한 옷으로 길이는 긴 것과 무릎 정도의 것이 있다. 잠옷 위에 걸쳐 입으며, 안감을 넣거나 단추가 없이 끈으로 여미는 형태가 많다.

8) 베이딩 가운

(사) 목욕 후, 혹은 수영한 후에 걸치는 가운을 말한다. 흡습성이 좋고 타월지 등으로 만든다. 일반적인 형태가 긴 소매와 쇼올(shwal)칼라를 가지고 있으며 끈으로 여미게 되어 있다.

(전) 목욕 후 입는 가운.

3. 언더웨어

(사) 피부에 직접 닿는 옷을 포함한, 겉옷 아래 착용하는 의복으로 언더클로즈(underclothes)와 동일하게 사용한다. 즉, 속옷의 총칭으로 아우터웨어(outerwear)에 대해서 가장 속에 착용하는 의상 전반을 가르킨다.

(전) 외기로 부터의 보온을 도모하고 피부의 보호를 주목적으로 하는 가장 실용적인 속옷을 말하며, 방한성을 지니고 흡수성이 높은 직물을 사용한 겨울철 속옷이 대부분이다.

1) 슈미즈

(사) 헐렁한 여성용 속옷으로 어깨에서 직선으로 내려와 둔부를 가릴 정도의 길이이다. 처음에는 소매가 있었으나 현재는 일반적으로 소매가 없고 피부에 바로 착용되며 의복의 오염을 방지하는 실용본위의 속옷이다. 원래는 시프트(shift)라 불리웠다.

(전) 부인용의 여유있는 속옷이며 어깨로 부터 내려와 허리를 가리는 정도의 길이를 말한다. 맨몸에 착용하여 겉옷이 더러워지는 것을 방지하는 실용 위주의 속옷이다.

2) 런닝 셔츠

(사) U자나 라운드 네크로 소매가 없는 운동용 셔츠를 뜻한다. 면 메리아스 등 니트 소재로 만들어지고 남성용의 속옷으로 착용한다. 진동둘레가 크고 목둘레선이 깊이 파인 소매없는 셔츠로 육상경기나 활동적인 단체 경기를 위해 착용된 것이며 남녀공용으로 사용한다. 탱크 탑(tank top)이라고도 하며 남성의 언더셔츠와 유사한 형태이다.

3) 드로어즈

(사) 남녀 모두에게 입혀지는 바지형으로 된 헐렁한 하의이다. 보온과 흡수성이 주된 목적이며 길이는 여러 가지가 있다.

(전) 반바지풍으로 된 헐렁한 하의, 보온과 흡수성이 주된 목적이다.

4) 콤비네이션

(사) 원피스로 된 속옷의 총칭이다. 슈미즈와 드로어즈 또는 팬티즈와 함께 이어진 것과, 소매없는 언더 셔츠와 드로어즈가 함께 이어진 것 등이 있다. 아래와 위의 경계가 없이 하나로 이어진 것이어서 주로 어린이용으로 쓰인다.

(전) 추운 계절의 실내복으로 간편하고도 부드러운 홈웨어이다. 속에 입는 옷은 소매없이 네크라인이 넓고 깊게 파고 기장은 짧으며, 걸치는 옷(covered-wear)은 같은 스타일의 디자인으로 리본이나 스냅 정도로 요크 부분만 클로징한다.

5) 브리프스

(사) 브리프는 '짧은, 간결한'이란 뜻으로 밑아래에서 바지가랑이가 전혀 없고 다리둘레에 꼭 맞는 짧은 아래속옷을 말한다. 주로 소재는 나일론, 레이온, 견, 메리야스 등이 쓰이며 자수나 레이스, 리본 등으로 장식된 것도 있다.

(전) 타이트한 형태로 옆선의 길이가 16cm 이상되는 팬티인데 요즈음은 미니 브리프도 있다. 동계용으로로는 보온을 목적으로 감촉이 좋고 부드러운 계통의 나일론, 면, 스트레치 직물을 택하고, 하계용으로는 흡습성이 강한 면을 많이 사용한다.

지금까지는 복식사전과 복식 용어집 그리고 의류 전문지에 나타나 있는 속옷 명칭의 정의를 살펴보았다. 다음에는 설문지를 통해서 조사된 결과를 바탕으로 이상의 속옷명칭의 문헌적 정의와 실제 생활에서 착용상에 따라 인지하고 있는 실제 정의를 비교 분석하여 그 차이를 규명하고 속옷의 정의와 유사 속옷의 차이에 대한 인지기반을 살펴보고자 한다.

Ⅲ. 속옷 명칭의 분석 및 고찰

1. 속옷명칭의 정의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속옷명칭의 실제 정의를 사전 및 의류관련 전문지의 정의와 비교 분석하고, 실제로 속옷명칭이 속옷의 어떤 자질에 의해서 인지되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화운데이션

화운데이션에 대한 정의는 '체형보정용 속옷'이 40.7%, '가장 기초가 되는 속옷'이 28.0%로 나타났으며 분석 결과는 〈표 1〉과 같다. 따라서 화운데이션은 '체형 보정을 위한 기본적인 속옷'으로 인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문헌적 정의와 비교해 볼 때 매우 한정적이고 단순한 정의이다. 그리고 '얼굴에 바르는 피부 보호제'라고 화장품의 종류와 속옷의 종류를 혼동하고 있는 응답도 있었다.

화운데이션은 착용목적과 형태, 종류에 의해서 인지하고 있었으며, 특히 복식명칭의 상황자질인(신현숙, 1992) 착용목적에 인지기반을 두고 있

<표 1> 화운데이션의 정의

정 의	회수(%)
체형 보정용 속옷	61 (40.7)
가장 기초가 되는 속옷	42 (28.0)
몸매를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 착용하는 속옷	17 (11.3)
신체와 옷의 실루엣을 표현하는 옷	14 (9.3)
위생적인 목적으로 착용하는 기본 속옷	9 (6.0)
전반적인 속옷의 총칭	5 (3.3)
얼굴에 바르는 피부 보호제	2 (1.3)
전 체	150*(100.0)

* 전체는 조사대상자의 전체 인원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 문항에 대해 인원수만을 나타내는 것이다.

었다.

(1) 브래지어

브래지어는 '가슴의 형태를 보정하고 보호하는 것으로 가슴의 모양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는 체형 교정용 속옷'으로 인지하고 있었다. <표 2>에 의하면 브래지어의 경우 그 형태나 재료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고 모두 착용 목적과 기능에 의해서만 브래지어를 인지하고 있었다. 이것은 문헌적 정의와 비교해 볼 때 한정적인 정의이지만 브래지어를 착용 목적과 기능에 있어서는 올바르게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다른 자질보다는 착용 목적과 기능적인 자질이 브래지어를 인지하는데 절대적임을 알 수 있다.

또한 김순분과 김효은(1991 : 104)은 브래지어의 착용 이유를 '체형 정돈'이라고 했는데, 분석결과, 브래지어의 인지기반도 착용목적(즉 체형정돈)으로 나타나, 실제의 착용 이유와 인지하고 있는 정의와는 거의 일치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2) 거 들

거들에 대해서는 '엉덩이의 처짐을 방지해 주는 속옷', '체형유지와 보정을 위한 하반신용 속옷'이라고 인지한 응답자가 18.2%, 16.5%로 높은 빈도를 나타났는데, 응답자 대부분이 착용 목적과 기능에 의해서 거들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5%의 응답자만이 '팬티즈 위에 입는 속옷'이라고 답해 착용 공간을 언급하고 있다. 또한 문헌적 정의에서도, 거들의 착용 목적과 기능에 대한 설명이 두드러짐을 볼 수 있어, 거들은 하반신 보정이라는 기능이 우선되는 속옷이며 그렇게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인 정의 내용은 <표 3>과 같다.

<표 2> 브래지어의 정의

정 의	회 수(%)
가슴의 형태를 고정하고 모양을 아름답게 하는 기능을 한다	39 (25.3)
가슴의 형태를 아름답게 해주는 체형 교정용 속옷	33 (21.4)
가슴의 형태유지	18 (11.7)
가슴을 보호하고 형태를 만들어 주는 것	13 (8.4)
가슴의 보호와 형태유지를 위한 상의 속옷	10 (6.5)
가슴의 모양을 아름답게 유지시켜 주는 내의	7 (4.5)
가슴을 가리고 그 형태유지를 위해서 입는 속옷	6 (3.9)
가슴 가리개	6 (3.9)
가슴에 착용하는 내의	6 (3.9)
여성의 상의에 입으며 가슴의 정상적인 발달과 유지에 도움이 되는 옷	5 (3.2)
가슴을 가려주고 보호하는 것	5 (3.2)
가장 안에 입는 상의 속옷	3 (1.9)
가슴의 보정효과를 위해 착용	3 (1.9)
전 체	154(100.0)

<표 3> 거들의 정의

정 의	회 수(%)
엉덩이의 처짐을 방지해주는 속옷	22 (18.2)
체형유지와 보정을 위한 하반신용 속옷	20 (16.5)
배, 허리, 허벅지, 엉덩이를 조여 주어서 모양을 잡아줌	17 (14.0)
신체적 결점을 보안할 때 사용하는 것	14 (11.6)
코르셋과 같은 기능	12 (9.9)
하체의 체형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 입는 것	11 (9.1)
엉덩이의 형태를 교정시키기 위해서	8 (6.6)
팬티 위에 입는 속옷	6 (5.0)
속바지	5 (4.1)
코르셋보다 신축성이 덜한 옷	3 (2.5)
신체를 보호하고 보온효과가 있다	2 (1.7)
아름다운 몸매를 위한 옷	1 (0.8)
전 체	121 (100.0)

(3) 올인원

올인원의 경우 전체 응답자 217명 중에서 47명(21.7%)만이 응답하였는데, 이것은 올인원에 대해 들어 본 적은 있으나 무엇이 올인원을 가르키는지 정확히 인지하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상품명으로 올인원 또는 바디수트라는 명칭으로 시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78.3%(217명 중)의 인원이 모르겠다고 응답한 것은, 아직 올인원의 필요를 실감치 못하므로 인해 실제로 구입한 경험이 없는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23.4%의 응답자가 '위아래가 붙어 하나로 되어 있는 것'으로 23.4%가 '브래지어와 거들이 붙어 있는 원피스형의 속옷'으로 전체적인 인지는 부족하나마 어느 정도 형태에 대한 윤곽을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표 4〉를 보면, 착용 목적의 면에도 인지기반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코르셋

코르셋은 최근에 거들로 대치되어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으나 코르셋이라는 명칭은 거들과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음을 〈표 3〉과 〈표 5〉를 비교

<표 4> 올인원의 정의

정 의	회 수(%)
위아래가 붙어 하나로 되어 있는 것	11 (23.4)
브래지어와 거들이 붙어 있는 원피스형 속옷	11 (23.4)
수용복 형태의 코르셋	5 (10.6)
가슴부터 아랫배, 엉덩이까지 교정해 주는 속옷	5 (10.6)
상하의가 하나로 연결되어 신체보정 역할을 하는 속옷	4 (8.5)
브래지어와 코르셋의 기능을 한데 묶은 기능적 속옷	4 (8.5)
체형교정 및 몸매유지를 위한 것	4 (8.5)
원피스형의 코르셋	2 (4.3)
위아래가 붙어서 상체와 하체를 동시에 교정해 주는 화운데이션	1 (2.1)
전 체	47 (100.0)

<표 5> 코르셋의 정의

정 의	회 수(%)
몸에 꼭 맞으며 몸을 조이는 하의 속옷	48 (33.6)
몸의 맵시를 위해 착용하는 속옷	20 (14.0)
몸매를 교정해서 겉옷의 모양을 아름답게 하는 것	10 (7.0)
배와 엉덩이의 형태를 조절	9 (6.3)
가슴, 허리, 엉덩이까지의 체형을 교정하는 속옷	9 (6.3)
신체교정과 체형보완을 위한 것	8 (5.6)
하체를 교정하는 것	8 (5.6)
엉덩이의 형태유지나 교정	7 (4.9)
배, 허리를 교정	6 (4.2)
몸의 전체적인 형태를 유지시켜 주며 고정시켜 주는 속옷	5 (3.5)
신체의 결점을 보완하고 신체를 변형하는 기능을 하는 것	5 (3.5)
가슴으로부터 허리 아랫부분까지 몸매관리를 위한 옷	4 (2.8)
신체의 크기를 조절하여 전체적인 균형을 잡아 주는 것	2 (1.4)
여자용 속옷	1 (0.7)
전 체	143 (100.0)

해 보면 곧 알 수 있다. 코르셋은 일반적으로 '하체를 조여주고 형태를 교정하여 겉옷의 모양을 아름답게 하는 목적으로 착용하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코르셋의 본래의 목적은 가슴에서부터 엉덩이 위까지의 신체를 조이기 위한 것으로 문헌적 정의에서는 밝히고 있어 잘못 인지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유사속옷의 차이를 분석하는 문항에서 거들과 비교하도록 하였으므로 그 때 다시 언급하고자 한다.

<표 6> 웨이스트니퍼의 정의

정 의	회 수(%)
허리를 조여주는 속옷	8 (34.8)
허리를 가늘게 해주는 도구	4 (17.4)
허리 라인을 교정	3 (13.0)
허리를 가늘게 보이도록 조여주는 화운데이션	3 (13.0)
가슴 아래부터 허리까지의 길이로 허리 라인을 교정	2 (8.7)
허리의 굵기를 조절해 준다	2 (8.7)
허리를 받쳐 주는 것	1 (4.3)
전 체	23 (100.0)

(5) 웨이스트니퍼

웨이스트니퍼는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품목은 아니며 허리의 크기를 줄이기 위해 착용하는 체형 보정용 속옷으로 최근 들어 수입 브랜드들에서 선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인지도가 낮아 23명의 응답자만이 응답하였으나 〈표 6〉에서와 같이 웨이스트니퍼의 착용목적을 잘 이해하고 있었다.

2) 란제리

란제리에 대한 정의는 의외로 전체 응답자 217명 중 42.4%의 응답자가 모르겠다고 답했는데 이것은 정확한 용어 정리가 되지 않으므로 인해서 인지하고 있는 사실을 표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을 뿐 실제로 란제리라는 명칭을 모른다고는 볼 수 없다. 〈표 7〉에 의하면 문헌적 정의와 비교해 볼 때 '위생상의 속옷', '체형을 유지한다', '기본 속옷' 등을 제외하고는 과반수 이상이 비록 한정된 정의로 인지하고는 있으나 란제리가 무엇인지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순분, 김효은(1991)의 연구 결과에서처럼 착용율이 낮은 속옷에 대해서는 관심과 인지도가 낮

<표 7> 란제리의 정의

정 의	회 수(%)
겉옷의 형태를 아름답게 한다	36 (28.8)
여성용 속옷의 총칭	17 (13.6)
겉옷을 정리해 주는 속옷	14 (11.2)
일종의 속옷	11 (8.8)
체형을 보정, 유지한다	11 (8.8)
실크소재의 속옷	7 (5.6)
야한 속옷	7 (5.6)
속옷 중 겉에 입는 속옷류	5 (4.0)
상하분리형 속옷	4 (3.2)
기본 속옷	4 (3.2)
속이 비치지 않는 기능을 한다	3 (2.4)
위생상의 속옷	3 (2.4)
슬립형 속옷	1 (0.8)
화운데이션을 제외한 슬립, 캐미솔 등	1 (0.8)
속옷의 외국 명칭	1 (0.8)
전 체	125 (100.0)

다고도 볼 수 있다.

분석 결과, 란제리는 '겉옷의 형태를 아름답게 보이도록 착용하는 여성용 속옷의 총칭'으로써 기능적인 면에서 인지하고 있었으며 비로소 란제리의 경우 소재에 대한 언급이 나타났는데, 이것은 란제리의 기능과 관련해서 색채가 다양하고 광택과 촉감이 좋은 소재들을 사용하므로, 소재와 관련시켜서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1) 슬 립

슬립에 대한 정의는 〈표 8〉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다양하게 나타났는데 슬립의 착용목적과 형태에 대한 인지가 두드러진다. 복식 사전의 정의와 비교해 볼 때 형태와 소재면에서 비교적 잘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의류 전문지에 나타난 정의와는 기능과 역할면에서 일치하고 있었다.

따라서 슬립은 '스커트나 드레스를 입을 때 겉옷의 형태와 실루엣을 돋보이도록 착용하는 상하가 연결된 속옷'으로 인지함을 볼 수 있다.

(2) 캐미솔

<표 8> 슬립의 정의

정 의	회 수(%)
속치마	15 (15.0)
기본 속옷 위에 착용하여 바침을 방지하는 것	14 (14.0)
치마를 입을 때 착용하는 것으로 겉옷을 더욱 아름답게 하기 위한 것	13 (13.0)
겉옷의 형태를 유지	11 (11.0)
얇고 부드러운 천을 소재로 한 란제리	10 (10.0)
원피스형의 속옷으로 실루엣을 살려준다	7 (7.0)
실루엣을 좋게 하는 란제리	6 (6.0)
런닝셔츠와 속치마를 합한 형태의 란제리	6 (6.0)
상하가 연결된 원피스형 속옷	5 (5.0)
어깨끈이 달린 원피스형의 속치마	5 (5.0)
겉옷의 형태와 선을 살리기 위해서 착용하는 속옷	4 (4.0)
옷의 형태를 유지시켜 주고 정리해 주는 속옷	1 (1.0)
상체로부터 연결되는 속치마	1 (1.0)
볼륨을 살려 주는 것	1 (1.0)
장식용, 예의용 속옷	1 (1.0)
전 체	100 (100.0)

<표 9> 캐미솔의 정의

정 의	회 수(%)
어깨끈이 달린 런닝셔츠	3 (18.8)
여성용 런닝셔츠	3 (18.8)
상체를 조여주고 정리해 주는 화운데이션으로 체형유지	3 (18.8)
허리선까지 내려오는 상의 란제리	2 (12.5)
소매없는 윗 속옷	2 (12.5)
탱크 탑	1 (6.3)
허리선과 팬티가 연결된 형태	1 (6.3)
가슴부분에서 엉덩이까지 연결된 거들과 비슷한 것	1 (6.3)
전 체	16 (100.0)

캐미솔도 16명의 응답자 만이 응답하여 대단히 인지도가 낮은 명칭으로 나타났는데 문헌적 정의와 비교해 볼 때 〈표 9〉에 제시된 것과 같이 모두 한정되고 불분명한 것이며, '화운데이션으로 체형유지', '허리선과 팬티가 연결된 형태', '거들과 비슷한 것' 등 캐미솔과는 전혀 무관한 정의로 잘못 인지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캐미솔은 결코 새롭게 도입된 속옷이 아니며 현재도 널리 입혀지고 있음에도 명칭에 대한 인지도가 떨어지는 것은 캐미솔의 바른 정의를 알지 못하고 다른 명칭으로 부르고 있거나 다른 속옷에 함께 포함시켜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실제 정의와 문헌적 정의를 분석한 결과 캐미솔의 인지기반은 형태와 착용 공간에 있음을 볼 수 있다.

(3) 페티코트

페티코트의 경우 39.8%가 '치마의 볼륨을 위해 입는 속옷'으로 인지하고 있었으며 9.6%만이 '겉옷이 맵시있어 보이도록 입는 속옷'이라고 대답했다. 사전적 정의와 비교해 볼 때 페티코트의 정의는 잘못 인지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마의 볼륨을 위해 입는 것은 화팅게일(fathingale)이나 패니어(pannier)이며, 페티코트는 겉옷의 맵시를 위해 착용하는 언더 스커트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의류 전문지에서는 스커트의 부피를 부풀리기 위해 사용한다고 하여 페티코트의 원래의 기능이 현대에 와서 변화되어 다르게 인지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페티코트는 착용 목적에 인지기반을 두고 있었다.

(4) 팬티즈

팬티즈는 '위생과 보호라는 기능적인 목적으로 가장 속에 착용하는 하반신용 속옷'으로써 인지

<표 10> 페티코트의 정의

정 의	회 수(%)
치마의 볼륨을 위해 입는 속옷	33(39.8)
드레스의 부풀림을 위해 입는 옷	10 (12.0)
파티복이나 웨딩 드레스 속에 입어서 부풀리게 하기 위한 옷	9 (10.9)
겉옷의 모양을 아름답게 하기 위한 옷	8 (9.6)
속치마의 한 종류	7 (8.4)
체형보안의 하체형 속옷	5 (6.0)
스타킹을 고정하기 위한 것	2 (2.4)
날씬하게 보이기 위한 옷	2 (2.4)
허리는 조여 주고 치마는 부풀리게 하는 것	2 (2.4)
몸의 형태를 조절, 몸매를 가꿈, 보온유지	2 (2.4)
주름이 많고 층층이 겹으로 된 스커트 모양의 속옷	2 (2.4)
코르셋과 거들의 중간 형태	1 (1.2)
전 체	85 (100.0)

<표 11> 팬티즈의 정의

정 의	회 수(%)
가장 안에 입는 하의 속옷	32 (21.2)
가장 기본적인 속옷으로 분비물 흡수	30 (19.9)
신체청결 유지를 위해 착용	23 (15.2)
브리프 위에 입는 숏팬츠처럼 생긴 속옷	16 (10.6)
위생상 착용하는 하의 속옷	12 (7.9)
오염방지, 피부보호, 분비물 흡수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내의	12 (7.9)
청결유지와 신체보호를 위해 착용하는 속옷	8 (5.3)
신체의 중요한 부분을 보호하고 감싸는 기능을 하는 하의 속옷	7 (4.6)
피부와 직접적으로 만나는 하의 속옷으로 분비물 흡수하는 기능	3 (2.0)
사각형의 하의	3 (2.0)
가장 중요한 부위의 청결과 보호를 위해 갖추어 입는 것	3 (2.0)
위생을 목적으로 신체의 가장 속에 입는 하의	2 (1.3)
전 체	151 (100.0)

하고 있었다. 문헌적 정의는 형태와 착용 공간을 설명하고 있는데 비해, 〈표 11〉에 의하면, 실제 인지하고 있는 정의는 착용목적과 착용공간을 강조하고 있다.

(5) 네그리제

네그리제에 대해서는 14명만이 응답하여 인지도가 대단히 낮은 속옷명칭으로 나타났으며 '치마형의 잠옷', '잠옷과 비슷한 슬립', '원피스형 잠옷' 등으로 인지하고 있는 응답도 있어 네그리제라는 품목은 착용목적이 불확실하며 나이트 가운이나 나이트 드레스 등의 다른 품목으로도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명확히 구분하여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문헌적 정의와 비교할 때 '부드럽고 비치는 소재의 란제리류'로 비교적 바르게 인지하는 응답도 있었다.

<표 12> 네그리제의 정의

정 의	회 수(%)
치마형의 잠옷	6 (42.9)
부드러우면서 비치는 소재의 란제리류	2 (14.3)
잠옷과 비슷한 슬립	2 (14.3)
슬립과 비슷한 것	1 (7.1)
원피스형 잠옷	1 (7.1)
체형유지하는 옷	1 (7.1)
여자 속옷	1 (7.1)
전 체	14 (100.0)

(6) 파자마

파자마의 경우 응답자 중 39.4%가 '잠옷'으로, 17.3%가 '바지 잠옷'으로 형태와 착용시기, 착용목적 면에서 정확히 인지하고 있는 명칭이다. 최근에는 남녀의 구별없이 파자마를 잠옷으로 많이

<표 13> 파자마의 정의

정 의	회 수(%)
잠옷	50 (39.4)
바지 잠옷	22 (17.3)
잠 갈 때 입는 편한 잠옷	21 (16.5)
상하로 나누어진 잠옷	19 (15.0)
잠옷 형태의 반바지	5 (3.9)
하의가 바지로된 잠옷	4 (3.1)
바지 모양으로 잠잘 때 입는 속옷	2 (1.6)
남자용 잠옷	2 (1.6)
잠옷의 용도로 통이 크고 넓어서 편한 바지 모양의 속옷	2 (1.6)
전 체	127 (100.0)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자용 잠옷'으로 언급한 경우도 볼 수 있었는데, 이는 성역할 변화의 영향으로 성별에 따른 의복의 구분이 점차 모호해지고 유니섹스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는 (강혜원, 1995) 최근에도 속옷의 경우에는 분명 양성의 구별이 인식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7) 나이트 가운/나이트 드레스

나이트 가운과 나이트 드레스는 '잠옷', '잠옷 위에 걸치는 가운', '잠옷으로 입는 드레스'로 함께 사용되고 있었으며 복식사전과 의류전문지에서도 같은 명칭으로 함께 정의하고 있었다. 또한 파자마를 남성용 잠옷으로 정의내린데 비해 나이트 드레스를 여성용 잠옷으로 정의 내린 응답자도 있었다. 〈표 14〉에 의하면 나이트 가운/나이트 드레스는 '잠옷으로 입거나 잠옷 위에 걸치는 드레스나 가운'으로 정의내릴 수 있는데 착용목적과 착용시기, 착용공간, 착용자, 소재, 형태 등 매우 다양한 인지기반 위에서 인지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표 14> 나이트 가운/나이트 드레스의 정의

정 의	회 수(%)
잠옷	37 (30.8)
잠옷 위에 걸치는 가운	34 (28.3)
밤에 걸치는 옷	20 (16.7)
잠옷으로 입는 긴 드레스	14 (11.7)
편안한 수면을 위해 입는 옷	5 (4.2)
부드러운 소재로 된 원피스형의 드레스	5 (4.2)
파자마보다 모양이 더 화려한 옷	3 (2.5)
여성용 잠옷의 한 종류	2 (1.7)
전 체	120 (100.0)

(8) 베이딩 가운

베이딩 가운은 〈표 15〉에 따르면 '잠옷 위에 입는 가운'이라고 응답하기도 해 나이트 가운과 함께 혼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문헌 정의와 비교해 볼 때 착용목적, 착용시기, 착용공간과 소재에 있어서 바르게 인지하고 있었다.

<표 15> 베이딩 가운의 정의

정 의	회 수(%)
목용 가운	26 (28.3)
목욕 후에 착용하는 가운	26 (28.3)
목욕 후 걸치는 타올소재의 옷	12 (13.0)
잠옷 위에 입는 가운	9 (9.8)
샤워 후에 걸치는 가운	8 (8.7)
몸의 청결과 보호를 위해 입는 옷	6 (6.5)
목욕 후 속옷 입기 전에 걸치고 있는 옷	5 (5.4)
전 체	92 (100.0)

3) 언더웨어

언더웨어의 정의는 언더클로오즈와 혼용되고 있음을 문헌적 정의와 인지도 조사에서 모두 찾아볼 수 있다. 37.2%가 '겉옷 안에 입는 속옷'이라고 응답하였고 24.1%가 '겉옷 안에 입는 옷으로 분비물 흡수, 체온유지, 청결유지를 위한 것'으로 인지하고 있었으며 그 외에 위생상, 보온상, 보호 차원에서 입는 속옷으로 일반적인 속옷에 대한 정의를 가지고 있었다.

실제로 언더웨어란 명칭이 언더클로오즈, 언더커버(under cover), 인너웨어(inner wear)와 같이 속옷, 내의라는 뜻으로 혼용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보온과 위생을 목적으로 착용하는 속옷만을 위한 명확한 명칭이 따로 사용되고 있지 않으므로 인지도 조사에서도 그와 같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 〈표 16〉에 따르면, 언더웨어는 일반적으로 위생과 보온을 목적으로 하는 속옷으로 인지기반을 착용 목적에 두고 있었다.

(1) 슈미즈

〈표 17〉에서 나타나듯이 슈미즈의 명칭에 대한 인지도도 대단히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17명의 응답자만이 답했으며, 보온과 오염 방지의 기능을 위해 착용하는 속옷으로 정의된 문헌적 정의와 비교해 볼 때 '체형보정을 위한 것', '속치마', '가운' 등은 완전히 잘못 인지한 것이다. 이는 슈미즈라는 명칭이 생소한 것으로 실제 슈미즈를 거의 착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결과에 의해서 슈미즈의 인지기반을 분석

<표 16> 언더웨어의 정의

정 의	회 수(%)
겉옷 안에 입는 속옷	74 (37.2)
겉옷 안에 입는 옷으로 분비물 흡수, 체온유지, 청결유지를 위한 것	48 (24.1)
신체를 보호하고 피부청결을 돕는 속옷	25 (12.6)
위생상, 보온상, 외관상의 목적으로 입는 것	21 (10.6)
겉옷 속에 몸을 보호하는 옷	19 (9.5)
기본적으로 입는 속옷	10 (5.0)
겉옷 안에 입는 방한용 속옷	2 (1.0)
전 체	199 (100.0)

<표 17> 슈미즈의 정의

정 의	회 수(%)
아름다운 실루엣을 위해 착용하는 것	4 (23.5)
체형유지를 위한 것	3 (17.6)
상의 속옷의 한 종류	3 (17.6)
체형보정을 위한 것	2 (11.8)
몸에 꼭 붙는 옷	1 (5.9)
탱크탑과 유사한 속옷	1 (5.9)
속치마	1 (5.9)
여성용으로 소매가 있는 런닝셔츠	1 (5.9)
가운	1 (5.9)
전 체	17 (100.0)

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며, 이는 위생과 보온의 목적을 위해 착용하는 실용위주의 속옷보다는 형태보정과 심미성을 위한 장식위주의 속옷을 선호하는 경향이 높아졌음을 나타낸다고 하겠다.

(2) 런닝 셔츠

런닝 셔츠에 대한 정의는 '땀과 분비물 흡수를 위해 면으로 만든 소매없는 상반신용 속옷'으로 인지하고 있다. 런닝 셔츠는 위생상의 목적으로 착용하는 속옷으로 가장 높게 인지하고 있었으며 형태와 소재에 대해서도 비교적 정확히 인지하고 있었다. 이것은 실제로 착용 빈도가 높은 속옷임을 암시해 주며 실생활에서도 런닝 셔츠라는 명

<표 18> 런닝셔츠의 정의

정 의	회 수(%)
땀과 피부 분비물 흡수를 위해 착용하는 상의 속옷	79 (53.0)
브래지어 위에 입는 상의 속옷으로 땀과 분비물을 흡수하는 것	14 (9.4)
위생에 중점을 두고 상반신에 착용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속옷	13 (8.7)
상체를 가려주는 상의 속옷	10 (6.7)
상체의 보온유지, 땀흡수, 피부보호를 위해서 착용하는 것	10 (6.7)
내의	5 (3.4)
소매없는 티셔츠 모양으로 상체에 입는 옷	4 (2.7)
메리야스	4 (2.7)
비침을 방지하고 속옷을 정리하는 것	4 (2.7)
상체에 입는 면소재의 속옷	3 (2.0)
상반신의 가장 기본이 되는 속옷	1 (0.7)
신체에 직접 닿는 상의	1 (0.7)
추위로 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	1 (0.7)
전 체	149 (100.0)

칭을 그러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사전적 의미에서 볼 때 런닝 셔츠를 속옷류에 포함시키지 않고 셔츠로 분류하고 있었으며 원래는 운동용 셔츠였던 것이 남성에 의해 속옷으로 입혀졌던 것을 말하고 있다. 또한 의류 전문지에서는 언더웨어류의 속옷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명칭 정의가 빠져 있는 것으로 보아 별도로 용어 해설이 필요없이 널리 공통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속옷으로 볼 수 있다.

(3) 드로어즈

드로어즈에 대한 명칭 정의는 1명만이 응답해 분석에 사용된 품목 중에서 가장 인지도가 낮은 속옷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그 응답의 경우 팬티즈에 대한 정의와 동일하게 나타나 같은 속옷 명칭으로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최근에 드로어즈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지 않거나 실제로 착용하지 않는 속옷으로 보고 있는데 문헌적 정의에서는 '보온과 흡수성의 목적으로 남녀 모두에게 입혀지는 반바지 형의 헐렁한 하의'라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남성경우에는 아동과 노년층을 위한 하의용 언더웨어로, 여성경우에는 바지형태의 속치마로 변형되거나 거들로 그 기능이 대체되어 현재는 사용되고 있지 않는 명칭으로 볼 수 있다.

<표 19> 콤비네이션의 정의

정 의	회 수(%)
위 아래 한 벌로 된 란제리	9 (47.4)
아래 위가 연결되어진 속옷	3 (15.8)
상의와 하의로 나누어진 디자인, 색상, 재질이 같은 화운데이션	3 (15.8)
전체적으로 브라, 허리 거들, 팬티로 함께 착용할 수 있는 것	2 (10.5)
윗 속옷과 아래 속옷이 따로 구별된 것	1 (5.3)
체형교정의 속옷	1 (5. 3)
전 체	19 (100.0)

<표 20> 브리프스의 정의

정 의	회 수(%)
팬티와 동일한 것	13 (19.7)
청결, 보호를 위해서 착용하는 것	10 (15.2)
반바지 형태의 속옷	10 (15.2)
가장 기본적인 하의 속옷	6 (9.1)
팬티 위에 입는 헐렁한 팬티보다 긴 속옷	5 (7.6)
일반적으로 팬티라고 말하는 가장 기초적인 속옷	5 (7.6)
삼각 팬티	4 (6.1)
신체의 가장 안쪽에 착용하는 하의 속옷	3 (4.5)
하체를 가려주는 속옷	3 (4.5)
팬티보다 약간 더 헐렁하고 큰 것	3 (4.5)
팬티보다 좀더 긴 하의 속옷	2 (3.0)
팬티와 같은 기능을 하나 팬티보다 좀더 긴 반바지 모양의 속옷	1 (1.5)
긴 팬티	1 (1.5)
전 체	66 (100.0)

(4) 콤비네이션

콤비네이션은 문헌적 정의에 따르면 원피스로 된 속옷의 총칭이라고 할 수 있으며 여성 속옷에서 실지로 시판되고 있는 명칭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응답자는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실제로 그런 속옷을 알거나 착용해 본 경험이 있다기 보다는 단어 자체의 뜻에서 유추해 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5) 브리프스

브리프스에 대한 인지는 〈표 20〉에서 보는 것과 같이 팬티즈보다 크고 길며 헐렁한 것으로 드로어즈와 상당히 혼동하여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문헌적 정의에서는 브리프스를 팬티즈와 구별하고 있는데 비해, 실제로는 브리프스를 팬티즈와 동일한 것으로, 함께 사용되는 명칭으로 나타났다. 브리프스에 대한 인지기반은 착용목적과 형태, 착용공간에 두고 있었다.

지금까지 문헌에 제시된 속옷 명칭의 정의와 실제로 인지하고 있는 정의 사이의 차이를 비교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속옷 명칭에 대한 개인의 정의는 매우 축소되고 한정된 것으로 문헌에 제시된 것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속옷 명칭의 주된 인지기반은 착용 목적/동기와 관련된 속옷의 기능/역할을 들 수 있다.

2. 속옷의 차이

유사 속옷에 대한 비교 분석에는 문헌적 정의를 참고로 형태, 소재, 착용목적, 착용공간에 있어서 유사하다고 인식되는 여덟 가지의 품목만을 발췌하여 조사한 자료가 사용되었다.

1) 거들/코르셋

거들과 코르셋은 착용 목적과 착용 공간 그리고 압박상태에 의해서 달리 인지하고 있었다. 응답 중 32.6%의 학생이 압박상태에 따라 가장 많이 그 차이점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표 21〉에서와 같이 같은 것으로 인지한 경우도 볼 수 있다. 이것은 거들이 코르셋의 대용으로 사용하는 품목으로서 기능이 같고, 단지 소재에 의해서 압박상태에 차이가 있다고 볼 때 그 차이점을 비교적 잘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런닝 셔츠/캐미솔

런닝 셔츠와 캐미솔은 기능의 차이로 인지하고 있는 학생이 44.2%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이것은 런닝 셔츠와 캐미솔의 정의에 대한 정확한 인지는 부족할지라도 런닝 셔츠를 보온 위생을 위한 것으로, 캐미솔을 장식을 위한 것으로 그 차이를 인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착용자, 형태, 소재의 차이에 의해서 두 속옷의 차이를 인지하고 있었으나 무엇보다도 기능과 관련된 착용목적에 차이를 두고 인지하고 있었다.

3) 슬립/슈미즈

슈미즈에 대한 인지도가 대단히 낮은 데 비해 슬립과 시미즈의 차이를 비교적 정확히 인지하고 있었다. 너무도 낮은 수의 응답이므로 확대 해석할 수는 없지만 형태, 기능, 착용 공간의 차이에

<표 21> 거들과 코르셋의 비교

거 들	코 르 셋	회수 (%)
덜 타이트한 것	보다 많이 타이트한 것	42 (32.6)
하체에 착용	상하체에 착용	25 (19.4)
특정 부분만 보정	몸 전체의 보정	22 (17.1)
속옷의 기능	몸을 조여주는 기능	19 (14.7)
체형보정 및 유지	체형 변형	14 (10.9)
소재, 모양이 다름	소재, 모양이 다름	4 (3.1)
차이가 없이 같다	차이가 없이 같다	3 (2.3)
전 체		129 (100.0)

<표 22> 런닝셔츠와 캐미솔의 차이

런닝셔츠	캐 미 솔	회수 (%)
보온과 분비물 흡수를 위해 착용	외관상의 모양을 위해 착용	19 (44.2)
남녀 공용	여성만 착용	6 (14.0)
여유있는 형태	보다 타이트한 형태	5 (11.6)
어깨부분이 넓다	어깨가 끈으로 되어 있다	3 (7.0)
상체 정리	정리와 체형 보정	3 (7.0)
길이가 길다	길이가 짧다	2 (4.7)
소매가 있다	소매가 없다	1 (2.3)
평범한 모양	입체적이고 아름다운 모양	1
면이 소재	레이스가 소재	1
흰색	다양한 색	1
보통 의복 위에 착용	블라우스 위에 착용	1
전 체		43 (100.0)

<표 23> 슬립과 슈미즈의 차이

슬 립	슈 미 즈	회수 (%)
상하 분리형, 원피스형	원피스형	7(38.9)
겉옷의 실루엣을 아름답게 하는 기능	위생적 기능	5 (27.8)
몸에 붙는 형	여유있는 형	2 (11.1)
상하체 연결하여 착용	상체만 착용	2 (11.1)
란제리	언더웨어	1 (5.6)
스커트 속에 착용	바지 입을 때 상체에 착용	1 (5.6)
전 체		18 (100.0)

의해 인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4) 팬티즈/브리프스

〈표 24〉에 의하면 팬티즈와 브리프스는 대단히 혼동해서 사용하고 있는 명칭으로 볼 수 있다. 총 65명의 응답자 중에서 반수의 응답자가 상반되는 내용으로 그 차이를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헌적 정의에 따르면 브리프스는 팬티보다 타이트하고 전혀 바짓가랑이가 없고 다리에 꼭 맞도록 디자인 된 것으로 팬티즈와 동의어로도 쓰인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그 반대의 응답은 (가로선*의 아래쪽 응답) 그 차이를 완전히 잘못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오히려 팬티즈와 드로어즈의 차이를 언급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차이점에 대한 인지기반을 살펴볼 때 착용공간의 차이를 인지기반으로 하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그리고 길이, 형태, 착용목적과 착용의 여유 정도에 의해서도 그 차이를 인지하고 있었다.

이상에서 유사 속옷의 차이에 대한 인지기반을 살펴보았으나 응답의 회수가 적어 확대 해석하는 데는 문제가 있고 더 많은 항목을 비교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다음 기회에 좀더 구체적으로 살피기로 하고 다음 장에서 이 글의 분석 결과를 정리해 보기로 한다.

<표 24> 팬티즈와 브리프스의 차이

팬 티 즈	브리프스	회수 (%)
브리프스 위에 입는 것	가장 속에 입는 것	11 (16.9)
길이가 더 길다	길이가 짧다	6 (9.2)
사각형태	삼각형태	6 (9.2)
보다 여유가 있는 것	타이트한 것	4 (6.2)
차이가 없이 같다	차이가 없이 같다	4 (6.2)
보온, 겉옷 정리의 목적으로 착용	위생적인 목적으로 착용	1 (1.5)
소재의 차이	소재의 차이	1 (1.5)
몸에 꼭 맞는 것	팬티보다 여유가 있는 것	8 (12.3)
위생적인 목적	보온, 겉옷 정리의 목적	8 (12.3)
가장 속에 입는 것	팬티 위에 입는 것	7 (10.8)
삼각형태	사각형태	6 (9.2)
짧다	길다	3 (4.6)
전 체		65 (100.0)

* 표 중간에 있는 가로선은 응답자의 상반된 응답을 표시하기 위한 것이다.

Ⅳ.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서론에 제시한 세 가지 질문에 대한 적절한 해답을 찾고자 노력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문헌에 제시된 속옷 명칭의 정의와 실제로 개인이 인지하고 있는 정의 사이에는 차이가 있었다. 개인의 정의는 매우 축소되고 한정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잘못 인지한 정의도 상당수 볼 수 있었다.

둘째,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속옷 명칭의 정의는 착용 목적, 착용 공간, 착용 시간, 착용자, 형태, 소재에 의해서 인지하고 있었으며 착용 목적은 인지기반으로서 가장 우선되는 자질이다.

셋째, 유사 속옷을 비교한 결과 착용 목적, 착용 공간, 착용자, 그리고 속옷의 형태와 소재에 의해서 인지하고 있었으나, 유사 품목과 어떠한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하고 있기보다는 매우 한정적이고 단순한 인지만을 가지고 있었다.

조사 대상자들이 응답한 속옷 명칭의 정의를 분석한 결과 우리가 실생활에서 인지하여 사용하고 있는 속옷 명칭의 정의를 제시하면 다음 표와 같다.

최근 수입 개방과 함께 해외 유명 브랜드의 진출과 신규 업체의 참여로 속옷 시장은 급격한 성장율을 보이고 있으며(섬유저널, 1997), 남녀노소가 하루도 속옷을 입지 않는 날이 없는 사용빈도 최고의 품목임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속옷 명칭에 대하여 대단히 낮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음이 밝혀졌다. 물론 조사 대상자의 수가 전체적인 인지를 조사하는 것에는 부족하고, 분석한 속옷 명칭 중에서 전통적인 속옷의 명칭이 제외되었으므로 속옷 명칭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기는 어렵다.

올바른 구매와 착용을 위해서는 명칭에 대한 바른 인지와 그것을 위한 정보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보며 앞으로 보다 풍부한 자료를 통해서 좀 더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복식 품목	조사된 정의
화운데이션	몸매를 아름답게 만들기 위하여 입는 체형 보정용 속옷
브래지어	가슴의 형태를 보정하고 보호하는 것으로 가슴의 모양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는 체형 교정용 속옷
거들	엉덩이와 아랫배의 처짐을 방지하고 형태를 보정하는 하반신 속옷
올인원	가슴, 엉덩이, 아랫배의 형태를 교정해 주는 거들과 브래지어가 합하여진 형태의 체형 보정용 속옷
코르셋	신체를 조여주고 형태를 교정하여 겉옷의 모양을 좋게 하는 것
웨이스트니퍼	허리를 가늘게 보이도록 조여주는 속옷
란제리	겉옷의 형태를 아름답게 보이도록 하는 목적에서 착용하는 여성용 속옷의 총칭
슬립	스커트나 드레스를 입을 때 겉옷의 형태와 실루엣이 돋보이도록 착용하는 상하가 연결된 속옷
캐미솔	런닝셔츠 대용으로 브래지어 다음에 착용하는 상반신용 속옷
페티코트	스커트의 부피를 크게 하기 위해서 입는 속옷
팬티즈	위생과 보호라는 기능적인 목적으로 가장 속에 착용하는 하반신용 속옷
네그리제	부드럽고 비치는 소재의 란제리류
파자마	상하의로 나누어져 있으며 하의가 바지 형태로 된 잠옷
나이트 가운	잠옷으로 입거나 잠옷 위에 걸치는 드레스나 가운
베이딩 가운	목욕 후에 착용하는 타올 소재의 가운
언더웨어	위생과 보온을 위해서 겉옷 바로 밑에 착용하는 속옷의 총칭
슈미즈	브래지어 위에 착용하는 소매가 있는 상반신용 속옷
런닝 셔츠	땀 흡수를 위해 면으로 만든 소매 없는 상반신용 속옷
드로어즈	팬티 위에 있는 하반신용 속옷
콤비네이션	위 아래가 연결되어 한 벌로 된 속옷
브리프스	청결과 위생을 위해 착용하는 가장 기초적인 하의용 속옷

참고문헌

1. 강혜원, 의상사회심리, 교문사, 1995.
2. 구정모, "제조에서 소비까지: 봉제상품의 전문 상식(17)-(19)", 봉제계, 12월~2월호, 1987~1988.
3. 김순분, 김효은, "여성의 속옷 착용에 관한 조사연구(1)", 가정생활연구 6집, 대구대학교: 가정생활연구소, 1991.
4. 라사라 교육개발원, 복식사전, 도서출판 라사라, 1992.
5. 박기완 편저, 도해 복식용어사전, 유신문화사, 1996.
6. 섬유저널, "'95/'96 수입 브랜드 현주소는?", 7월호, 1995.
7. 섬유저널, "이너웨어 사업성공 6단계 제안", 4월호, 1997.
8. 신여원 생활부, "언더크로스의 종류와 용어", 신여원, 5월호, 1972.
9. 신현숙, "한국어 복식명칭의 언어학적 분석", 가정문화연구 9집, 상명대학교: 가정문화연구소, 1992.
10. 우명숙, "여체를 창조하는 여성 내의류의 종류와 패션", 봉제계, '83: 7, 8, 10, 11월호, '84: 2, 3 ,4, 5, 6월호, 1983~1984.
11. 한명숙, "복식명칭의 화용론적 연구: 겉옷을 중심으로", 가정문화연구 9집, 상명대학교: 가정문화연구소, 1992.
12. 石山彰編, *Costume Lexicon for Fashion Business*, タウイソト社, 1982.
13. 青木英夫 外 9人, 服裝大百科事典, 被服文化

協會編, 文化出版局, 1969(昭和44).

14. Calasibetta, C. M., *Essential Terms of Fashion*, New York: Fairchild Publications, 1986.
15. Geeraerts, D., Grondelaers, S. & Bakema, P., *The Structure of Lexical Variation Meaning, Naming, and Context, Mouton de Gruyter, Berlin*. New york, 1994.
16. Picken, M. E., *The Fashion Dictionary*, New York: Funk & Wagnalls, 1957.
17. Roach, M. E. & Eicher, J. B., *Social Aspects of Dress*, ACPTC, 1989.